■ 2014 수능시험 개편안

국·영·수 비중 더 커졌다

수준별 시험 … 난이도 조절 논란 클 듯

과목별 출제 주입식 교육 부추길 우려

2014학년도 수능개편안의 골자인 국어·수학·영어의 수준별 시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년 수능에서 난이도 문제가 불거지는 데, 과목·수준별 적정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과목별 출제로 시험범위를 제한하면 자칫 주입식 교육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수능 개편안에 따르면 A형은 현행 수능보다 출제 범위가 줄고 문제도 쉽게 출제되며 B형은 현행 수능(이미 발표된 2012학년도 수능)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수험생들은 진학하고 싶은 모집단위에 따라 국어 A·B형, 수학 A·B형, 영어 A·B형 중 각각 하나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B형은 최대 두 과목까지 만으로 제한됐다.

인문·사회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은 국어 B형, 수학 A형, 영어 A형 또는 B형을, 이공계 지원자는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것을 일반적인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상위권 대학은 특정 조합(인문계열 국B-수A-영B, 이공계열 국A-수B-영B)만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국영수 비중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상위권 대학은 A형보다는 변별력이 높은 B형 성적에 치중해 합격자를 뽑는 관행을 보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예체능 계열이나 특성화고 동일계열 진학 희망자는 국어 A형, 수학 A형, 영어 A형을 선택할 수 있다. 수험생은 일부 과목(국어, 수학)에 응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수준별 시험을 도입해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개편안이라는 반응이다.

광주 지역 한 교사는 "현재도 난이도 조정 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국영수 모두 수준별로 바꾸면 또 다른 차원의 난이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영역별 출제에서 과거의 과목별 출제로 수능 시스템을 바꾸면 이해력을 묻는 문제보다는 주입식, 암기식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자칫 '학력고사 부활'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B형의 최대 선택 과목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일부 대학은 국영수 모두 B형을 요구하게 되고 이럴 경우 수험 부담은 현재보다 증가한다"며 "특히 국어 B형과 수학 B형을 동시에 선택하는 수험생은 인문계열 수준의 국어와 자연계열 수준의 수학 시험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2014 수능 탐구영역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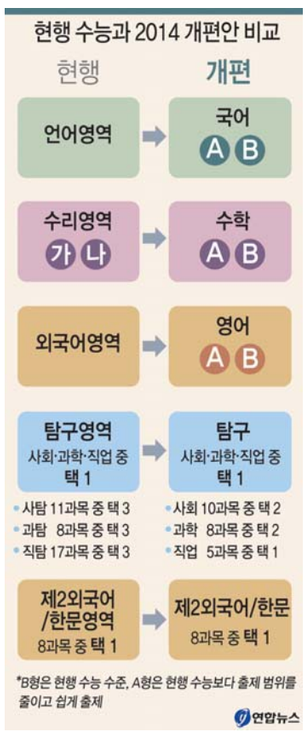
◇ 사회·과학탐구

현행 (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에 응시)	개편 (사회 또는 과학에 응시)
사회탐구 : 11과목 중 3과목 선택	사회 : 10과목 중 2과목 선택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국사, 윤리(윤리와 사상, 전통윤리)	한국지리, 세계지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과학탐구 : 8과목 중 3과목 선택	과학 : 8과목 중 2과목 선택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물Ⅰ, 생물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

◇ 직업탐구(5개 과목 통합)

직업탐구영역 5개 시험과목	출제 범위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농업이해, 농업기초기술, 공업입문, 기초제도, 상업경제, 회계원리, 해양일반, 수산·해운정보처리, 인간발달, 컴퓨터일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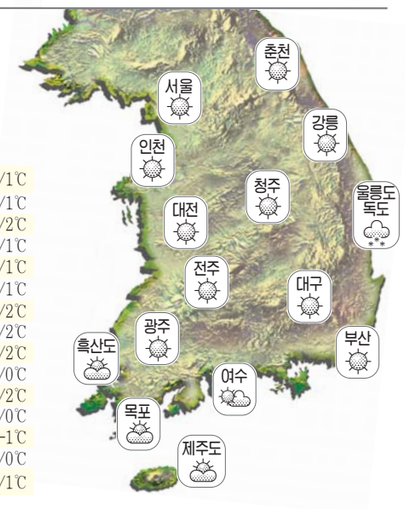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36분 해짐 17시 55분 달뜸 01시 22분 달짐 11시 51분

매서운 겨울 바람

대체로 맑겠으나 계속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겠다.

광 주	구름조금	-8/1℃
목 포	구름많음	-5/1℃
여 수	구름점차많아짐	-6/2℃
나 주	구름조금	-9/1℃
완 도	구름많음	-4/1℃
구 례	구름조금	-8/1℃
해 남	구름많음	-7/2℃
장 흥	구름점차적어짐	-7/2℃
순 천	구름조금	-6/2℃
영 광	구름많음	-10/0℃
진 도	구름많음	-5/2℃
전 주	구름조금	-11/0℃
군 산	구름조금	-10/-1℃
남 원	구름조금	-14/0℃
흑산도	구름많음	-1/1℃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서~북	1.0~2.0m

체감지수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높음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7:58 19:58	00:21 13:03
여수	02:38 14:33	08:42 20:5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8(금)	29(토)	30(일)	31(월)	1(화)	2(수)
날 씨						
최저/최고	-5/2	-5/-1	-8/-2	-6/0	-3/4	-1/5

재롱둥이들의 세배 설을 일주일 앞둔 26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은빛 재롱둥이 사랑나누기 한마당' 행사에서 광주 이화유치원생들이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한 뒤 사랑의 하트 표시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남구, 오늘 이주여성 설 체험행사

광주시 남구가 설을 맞아 전통 명절에 대한 이주여성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명절 체험행사를 연다.

남구는 "27일 월산동 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주여성 80여명이 참여하는 '설 명절 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주여성들은 행사에서 한복입기와 절하기 등 기초예절을 배우고, 상차리기와 떡썰기 등 전통 명절과 관련된 문화를 체험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문화적 차이로 이주여성들이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이주여성들이 명절 체험행사를 통해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5000부 미만 언론사 광고 안준다"

성남시 기준 마련 … 전남 모 지자체도 차등화

지방 언론사 난립 폐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행정광고 배정기준을 마련한 경기도 성남시에 전국 각 지자체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또 전남의 모 지자체도 최근 행정광고 차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확산여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한국ABC협회(신문잡지 부수 공사기구)가 지난해 공개한 1일 발행 부수 기준으로 5000부 미만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도 직후 경기도청을 비롯해 도내 6개 지자체, 전남·북과 경상도 지역 3개 지자체 등에서 성남시에 전화를 걸어 광고 집행기준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남의 모 지자체도 최근 홍보 및 주요 부서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행정광고 차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언론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면서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광역시나 도 단위에서부터 지방 언론사 폐해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 양산시는 새해부터 발행 부수 1만 부 이상 발행 언론사에 한해서 출입을 인정하고, 1만 부 이하 언론사는 고시·공고료 등 예산 지원 중단 원칙을 정한 바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위인설관' 논란 정책담당관 개선안 마련

시교육청, 부교육감 직속으로

광주시 교육청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위인설관'(爲人設官) 지적〈광주일보 1월21일 7면〉이 제기되자, 문제가 된 정책기획담당관을 교육감 직속에서 부교육감 아래로 한 단계 끌어내리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기존 개편안의 '인성복지과'를 '인성복지 건강과'로 바꾸고 체육교육팀을 두되, 학교체육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 체육인들이 학교체육을 위축한다며 반발한 탓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1담당관 2국 10과 48개팀이 2담당관 2국 9과 44개팀으로 변경되며 일부 국명, 과명 등이 바뀐다.

그러나 시교육청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신설되는 정책기획담당관이 부교육감 직속으로 갔다고 한들 근본적인 위인설관에는 변함이 없다"며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마이스터고 재학생 선발

삼성전자 원서 접수

삼성전자가 27일부터 31일까지 마이스터고 재학생들의 입사원서를 받는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밝혔다. 교과부와 삼성전자(사장 윤주화)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16개 마이스터고 34개과 1학년생 100명을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하는 계획을 공고했다.

지원 자격은 선발 대상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 상위 30% 이내에 들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온라인(www.dearsamsung.co.kr)으로 입사지원서를 내면 된다.

선발전형은 서류심사와 삼성직무적성검사(SSAT), 면접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월28일 발표된다. 선발된 장학생은 졸업 전까지 2년 동안 학업보조비 500만원을 지원받고 학기 중에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를 통해 현장능력을 배우며, 방학 때는 삼성전자 지역 사업장에 배치돼 총 3회 인턴과정을 거친다. /연합뉴스